

# 해남군 '스포츠 도시' 구축... 대형 체육시설 줄줄이 착공

### 스포츠파크·복합체육문화센터·구교체육관 조성 공사 시작 장애·비장애인 장벽없이 이용... 스포츠마케팅 새 전기 마련

해남군이 '군민 누구나, 스포츠와 함께'를 목표로 공공체육시설 등 스포츠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달 중 해남스포츠파크와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체육관 조성공사에 착공하는 등 스포츠도시로의 위상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 제2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되고 있는 해남스포츠파크는 총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남읍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조성된다.

야구장 1면과 축구구장(야구+축구) 1면, 축구장 1면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갖춘 스포츠 파크를 조성, 2025년 개관할 예정이다.

설계단계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최상의 경기여건을 갖춘 구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본격 운영시 해남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남읍 신안리 일원에 연면적 2910㎡ 규모의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장애·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 특화 체육관과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

군은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들의 개방형 멀티공간으로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총 98억원이 투입되는 구교체육관 건립사업은 해남읍 구교리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청소년상담센터를 건립한다.

생활SOC공모에 선정돼 추진중인 이번 사업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구교지구 일원에 체육 시설을 신설해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시설은 물론 문화예술행사장,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비상응급구조 및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체육관 내부에는 청소년 상담센터와 체육문화공간을 조성,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대형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로 군민 생활체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지훈련 및 스포츠 대회 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권의 해남군스포츠사업단 체육시설장은 "해남스포츠파크, 복합체육문화센터 그리고 구교체육관은 해남군의 체육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군민들 누구나 스포츠 생활을 가까이서 즐기고,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제2스포츠타운 조감도.

## 완도 청정바다가 키운 '물김' 출하 한창



완도 금일수협 사동리 위판장에서 물김 위판을 하는 모습. <완도군 제공>

### 5일간 77억 상당 4394t 위판...생산량 전년비 33% 늘어

완도 물김이 제철을 맞아 출하가 한창이다.

완도군은 지난 5일 금일수협 사동리 위판장에서 김 양식 어업인, 금일수협 관계자, 중매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김 초매식을 열고 본격적인 물김 출하를 알렸다.

이날 물김 평균 경매 단가는 1마대(120kg) 당 16만6000원에 팔렸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77억원 상당 4394t이 위판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량은 33%, 생산액은 5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완도 물김은 총 7만5600여t(822억원)의 위판 실적을 기록했다.

물김은 내년 4월까지 채취한다. 완도군 측은

해황 여건이 좋아 품질이 전년보다 낮고 생산량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완도군에서는 총 403가구가 1만1960ha 규모 김 양식을 하고 있다. 참김과 돌김 등의 시설량은 21만5280헥타다.

완도군은 김 생산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김 활성 처리제 공급 사업과 인공 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광 남천사거리~중앙로 보행 환경 개선

### 종합정비사업 계획 중간 보고회

영광군이 남천사거리~중앙로 연결구간 도로 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다.

영광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영광읍 남천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및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영광읍 남천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였다.

이날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참석자들끼리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남천사거리부터 중앙로 연결구간 도로의 통행체계와 보행환경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광군은 보행환경 개선의 주요 내용 중 주차 문제 해결 방안과 일방통행과 양방통행 중 주민 선호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효과에 대한 안전성, 편리·쾌적성, 치안·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구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 영암 F1경주장, 안전운전교육장 활용

### 군-유관기관 양해각서...교통사고 등 실전 대응 교육 방침

영암군은 지난 12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전남경찰청, 전남개발공사, 한국자동차협회와 '영암모터피아 안전운전 교육'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전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된다.

영암 F1자동차경주장의 특수성을 살려 교통경찰관의 운전습관 개선, 교통사고 예방법 숙지, 차량 이용 범죄행위 대응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교육은 차량 추적과 각종 교통사고 등으로 구성된

실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암군은 지역 치안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F1경주장을 활용한 다양한 모의 훈련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장종호 전남개발공사사장, 성백진 한국자동차협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 영암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교육

### 이장단 협의회, 사례·신고 요령 등 마을 주민에 배포

영암경찰은 13일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와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벌였다.

영암경찰은 이날 오전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 22명, 영암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 홍보를 했다.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으로 속이거나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 정부지원금 지원, 자녀사칭 등을 통해 벌어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알렸다.

영암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면 일

단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장단 협의회는 전화금융사기 사례와 신고 요령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자료로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득 영암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전남도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참여치안과 정성치안 기조에 맞춰 주민과 경찰이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

## 오색빛깔 나전칠기에 매료... 목포 특별전 북적

### 현대한국나전 36인전 내년 2월25일까지 연장

목포시 특별전 '현대한국나전 36인전'이 내년 2월25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 전시는 애초 이달 10일까지 2개월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관람객의 호평과 인기에 힘입어 내년 2월25일까지 2개월가량 연장된다.

전시는 목포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나전칠기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대거 전시하고 있다.

그중 섬세한 문양과 줄임질 기법으로 나전칠기 무형문화재의 스승격인 전성규의 '산수문나전옷칠대궐반'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전하일품 김봉룡의 '견칠용봉문호'를 포함한 28점, 옷칠 보유자 김태희의 '십장생나전주철의결이장' 등 7점, 줄임질 보유자 송주안 1점, 송광웅 13점, 최상훈 4점, 줄임질 보유자 이형만 3점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 민종태, 신중현, 손대현, 정명채, 김상수, 양유전 등 대한민국 나전의 근현대를 잇는 대표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나전칠기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왕가의 진상품이나 양반 사대부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됐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신혼상처자본층이 형성돼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내년 2월25일까지 열리는 '현대한국나전 36인전'. <목포시 제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전칠기는 더욱 광활மான 기술적 발전을 해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대한국나전 36인전을 연장 운영하면서 귀중한 나전칠기 작품을 더 많은 시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며 "우리 시의 자산이 된 귀한 나전칠기 작품들을 소중히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가 열리는 목포자연사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장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장할 수 있고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목포시 '양대체전 성공' 기념 은목서 식수

### 종합경기장 주변 화단에 23그루...시민 번영 기원

목포시가 시민의 꿈과 열정으로 성공 개척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104회 전국체전 등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목포시는 지난 12일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시민의 번영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 주변 화단에 23그루의 은목서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3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 단체 회원 23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기념식수 표지판에 양대 체전을 성공으로 이끈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담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면서 "동마다 한 그루씩 은목서를 심은 만큼 앞으로도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